

No. 18

[1]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2] Welcome back to your favorite online channel, With Ethan.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온라인 채널인 'With Ethan'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 As always, I'm trying to make this channel a place that my followers of all ages can enjoy.
항상 그렇듯이 저는 이 채널을 모든 연령대의 팔로워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Recently, in the comments section, there have been some examples of language that is inappropriate for younger viewers.
최근 댓글란에 어린 시청자에게 부적절한 언어 사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5] Also, there have been some comments that are not relevant to this channel.
또한 이 채널과 관련이 없는 댓글도 일부 있었습니다.

[6] These kinds of comments are unacceptable for a channel like this.
이런 종류의 댓글은 이런 채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7] I would really like to ask that all of my followers keep these things in mind so that we can all enjoy this channel.
우리 모두 이 채널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팔로워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8] I always appreciate your time and support.
항상 여러분의 시간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9] Please keep watching.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19

[1] Timothy sat at his desk, desperately turning the pages of his science book.

Timothy는 책상에 앉아 필사적으로 자신의 과학책 페이지를 넘겼다.

[2] His science project was due in a few days and he had no idea where to start.

그의 과학 프로젝트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3] Finally, he closed his book, hit the table, and shouted, "This is impossible!"

마침내 그는 책을 덮고 테이블을 치며 "이건 불가능해!"라고 외쳤다.

[4] His sister, Amelia, drawn by the noise, came into his room.

그의 누나 Amelia가 그 소리에 이끌려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5] "Hey, little brother, can I help?"

"이봐, 동생, 누나가 도와줄까?"

[6] Timothy explained his situation and Amelia immediately had a solution.

Timothy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Amelia는 즉시 해결책을 내놓았다.

[7] She knew that Timothy enjoyed learning about environmental issues and suggested he do a project about climate change.

그녀는 Timothy가 환경 문제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기후 변화에 관한 프로젝트를 해보라고 제안했다.

[8] Timothy thought about the idea and agreed that his sister was right.

Timothy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후 누나의 말이 옳다고 동의했다.

[9] "Oh, Amelia, your idea is fantastic! Thank you. You are the best sister ever!"

"오, Amelia 누나, 누나의 아이디어는 정말 환상적이야! 고마워. 누나는 정말 최고의 누나야!"

No. 20

[1] As the world seems to be increasingly affected by the ever-expanding influence of machines in gener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specifically, many begin to imagine, with either fear or anticipation, a future with a diminished role for human decision making.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기계의 영향력,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공지능(AI)의 계속 확대되는 영향력에 점점 더 영향을 받는 듯 보이면서, 많은 사람은 두려움 속에 또는 기대를 품고 인간의 의사 결정 역할이 줄어드는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한다.

[2] Whether it be due to the growing presence of AI assistants or the emergence of self-driving cars, the necessity of the role of humans as the decision makers would appear to be in decline.

커지는 AI 조수의 존재감 때문이든, 자율 주행 자동차의 등장 때문이든, 의사 결정권자로서의 인간 역할의 필요성은 감소하는 듯 보일 것이다.

[3] After all, our capacity for making mistakes is well documented.

결국, 실수를 저지르는 우리의 능력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4] However, perhaps the saving grace of human determination is to be found here as well.

하지만, 아마도 인간 결단력의 장점 또한 여기에서 발견될 것이다.

[5] Little evidence exists that suggests modern AI's infallibility or predicts it in the future.

현재 AI의 무오류성을 시사하거나 미래에 그것을 예측하는 증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6] It is crucial that, in light of humanity's acceptance of our own fallibility, we utilize our capacity to overcome such failures to position ourselves as the overseers of AI's own growth and applications for the foreseeable future.

인류가 스스로 오류성을 인정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가까운 미래에 AI 자체의 성장과 적용의 감독관으로서 자리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No. 21

[1] To balance the need for breadth (everyone feels a bit burned out) and depth (some are so burned out, they can no longer do their jobs), we ought to think of burnout not as a state but as a spectrum. 폭(모두가 약간 지쳤다고 느낀다)과 깊이(일부는 너무 지쳐서 더는 일을 할 수 없다)에 대한 필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번아웃을 '상태'가 아니라 '범위'로 간주해야 한다.

[2] In most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we talk about workers who "are burned out," as if that status were black and white.

번아웃에 대한 대부분의 대중적 논의에서, 우리는 '번아웃 된' 노동자에 대해, 마치 그 상태가 흑백 상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3] A black-and-white view cannot account for the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 though.

그러나, 흑백 논리의 관점은 번아웃 경험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다.

[4] If there is a clear line between burned out and not, as there is with a lightbulb, then we have no good way to categorize people who say they are burned out but still manage to do their work competently.

전구의 경우 그런 것처럼, 번아웃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다면, 자신이 번아웃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용케도 자기 일을 유능하게 해내는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다.

[5] Thinking about burnout as a spectrum solves this problem; those who claim burnout but are not debilitated by it are simply dealing with a partial or less-severe form of it.

번아웃을 범위로 간주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번아웃을 주장하지만 그것에 의해 쇠약해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의 부분적이거나 덜 심각한 형태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6] They are experiencing burnout without being burned out.

그들은 번아웃 '되고 있지' 않으면서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

[7]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

번아웃은 마지막 진술을 하지 않았다.

No. 22

[1] In both the ancient hunter-gatherer band and our intimate speech communities today, the diffusion of speech shaped values.

고대의 수렵.채집인 무리와 오늘날 우리의 친밀한 언어 공동체 둘 다에서, 언어의 확산은 가치를 형성했다.

[2] The fact that everyone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 and listen had to be accommodated ethically, and it was via a rough egalitarianism.

모든 사람이 말하고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윤리적으로 수용되어야 했는데, 그것은 개략적인 인류 평등주의를 통해서였다.

[3] In terms of communications, people were equal and therefore it was believed they should be equal, or at least relatively so.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사람들은 평등했으므로, 그들은 평등'해야' 하거나 적어도 비교적 그렇다고 여겨졌다.

[4] By this code, ancient Big Men were not allowed to act controllingly and modern office managers are not allowed to silence anyone at will.

이러한 관례에 따라, 고대의 '거물'은 통제적으로 행동하도록 허용되지 않았고, 현대의 사무실 관리자는 마음대로 누구도 침묵시키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5] Moreover, equal access to speech and hearing promoted the notion that property should be held in common, that goods and food in particular should be shared, and that everyone had a duty to take care of everyone else.

게다가,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재산은 공동으로 소유되어야 하고, 특히 물자와 식량은 공유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촉진했다.

[6] This was probably more true among hunter-gatherers than it is in the modern family, circle of friends, or workplace.

이것은 아마도 현대의 가족, 친구 사이, 또는 직장에서도보다 수렵.채집인 사이에서 더 사실이었을 것이다.

[7] But even in these cases we believe that sharing and mutual aid are right and proper.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는 공유와 상호 협력이 옳고 적절하다고 믿는다.

[8] Remember, if you bring something, you should bring enough for everyone.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져온다면, 모두를 위해 충분히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No. 23

[1] While many city shoppers were clearly drawn to the notion of buying and eating foods associated with nature, the nature claimed by the ads was no longer the nature that created the foods.

도시의 구매자 대부분이 자연과 관련이 있는 식품을 사고 먹는다는 개념에 확실히 끌렸지만, 광고가 주장하는 그 자연은 더는 그 식품을 만들어 낸 자연이 아니었다.

[2] Indeed, the nature claimed by many ads was associated with food products only by the ads' attachment.

실제로 많은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은 '오직' 광고의 부속물로만 식품 제품과 관련이 있었다.

[3] This is clearly a case of what French sociologist Henri Lefebvre has called "the decline of the referentials," or the tendency of words under the influence of capitalism to become separated from meaningful associations.

이것이 프랑스의 사회학자 Henri Lefebvre가 '지시성의 감소'라고 일컬었던 것, 즉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단어가 의미 있는 연관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을 분명하게 보이는 사례다.

[4] Increasingly, food ads helped shoppers become accustomed to new definitions of words such as "fresh" and "natural," definitions that could well be considered opposite of their traditional meanings.

점차적으로, 식품 광고는 구매자가 '신선한', '자연스러운' 같은 단어의 새로운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도왔는데, 어쩌면 기존 의미와 정반대로 여겨질 수 있을 정의였다.

[5] The new definitions better served the needs of the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 which could not supply foods that matched customary meanings and expectations.

그 새로운 정의는 신흥 식품 산업 시스템의 요구에 더 잘 부합했는데, 그 시스템은 관례적인 의미와 기대에 부응하는 식품을 공급할 수 없었다.

[6] And they better met shoppers' desires, although with pretense.

그래서 비록 걸치레이긴 하더라도 그 정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더 잘 충족했다.

No. 24

[1] As far back as 32,000 years ago, prehistoric cave artists skillfully used modeling shadows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

무려 3만 2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선사시대 동굴 예술가들은 자신의 말과 들소 그림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모형화한 그림자를 능숙하게 사용했다.

[2] A few thousand years ago ancient Egyptian and then ancient Greek art presented human forms in shadow-style silhouette.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와 그 이후 고대 그리스 예술은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으로 인간 형태를 나타냈다.

[3] But cast shadows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until about 400 BCE in Athens.

그러나 서양 예술에서 그림자 드리우기는 기원전 400년경이 되어서야 아테네에서 등장한다.

[4] It was only after shadows had become an established, if controversial, part of representation that classical writers claimed that art itself had begun with the tracing of a human shadow.

고전 저술가들이 예술 자체가 인간 그림자의 모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그림자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표현의 확고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고 나서야였다.

[5] Greeks and Romans were the first to make the transition from modeling shadows to cast shadows, a practice that implied a consistent light source, a fixed point of view, and an understanding of geometric projection.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최초로 그림자를 모형화하는 방식에서 그림자를 드리우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일관된 광원, 고정된 시점, 기하학적 투영에 대한 이해를 함축하는 관행이었다.

[6] In fact, what we might now call "shadow studies" — the exploration of shadows in their various artistic representations — has its roots in ancient Athens.

사실 현재 우리가 '그림자 연구'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즉 다양한 예술적 표현에서 그림자에 관해 탐구하는 것은 고대 아테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7] Ever since,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has evolved along with critical analysis of them, as artists and theoreticians have engaged in an ongoing debate about the significance of shadow representation.

그 이후로 예술가와 이론가가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벌임에 따라 그림자를 묘사하는 방식은 그림자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No. 26

[1] Will Rogers (1879 - 1935) was a famous American public figure.

Will Rogers(1879~1935)는 미국의 유명한 공인이었다.

[2] He was born as the eighth child.

그는 여덟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3] When he was young, he was clever and mature but he dropped out of school after the 10th grade.

어렸을 때 그는 영리하고 어른스러웠지만 10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중퇴했다.

[4] He was very interested in cowboys and horses, and he even learned how to do rope tricks.

그는 카우보이와 말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심지어 밧줄로 묘기 하는 방법까지 배웠다.

[5] He left the U.S. in 1902 and worked as a cowboy and roping artist in South Africa and Australia.

1902년에 그는 미국을 떠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에서 카우보이와 로핑 아티스트로 일했다.

[6] After returning to the U.S., he appeared in more than 50 movies and was often heard on the radio as an entertainer.

미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5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라디오에 자주 엔터테이너로 나왔다.

[7] He was also an outstanding newspaper columnist with his wit and humor, writing more than 4,000 columns.

그는 또한 재치와 유머를 겸비한 뛰어난 신문 칼럼니스트로서 4,000편이 넘는 칼럼을 썼다.

[8] He unfortunately died at the height of his career in 1935.

그는 안타깝게도 경력의 한창일 때인 1935년에 세상을 떠났다.

[9] Rogers was so popular that after his death his statue was installed in the U.S. Capitol.

Rogers는 사망 후 미국 국회의사당에 그의 동상이 설치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10] He will be remembered as a great American of many talents.

그는 많은 재능을 가진 위대한 미국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No. 29

[1] W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than review?

블러오기를 연습하는 것이 복습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2] One answer comes from the psychologist R. A. Bjork's concept of desirable difficulty.

한 가지 대답은 심리학자 R. A. Bjork의 바람직한 난도 개념에서 나온다.

[3] More difficult retrieval leads to better learning, provided the act of retrieval is itself successful.

더 어려운 블러오기는 블러오기 행위 자체가 성공적이라면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진다.

[4] Free recall tests, in which students need to recall as much as they can remember without prompting, tend to result in better retention than cued recall tests, in which students are given hints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학생에게 힌트를 주지 않고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만큼 회상해야 하는 자유 회상형 테스트가 기억해야 할 내용에 대한 힌트를 주는 단서 회상형 테스트보다 결과적으로 더 나은 보유력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5] Cued recall tests, in turn, are better than recognition tests, such as multiple-choice answers, where the correct answer needs to be recognized but not generated.

그다음으로는 단서 회상형 테스트가 정답을 인식할 필요는 있지만 생성할 필요는 없는 다지선다형 정답과 같은 인식형 테스트보다 더 낫다.

[6] Giving someone a test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something improves retention less than giving them a slight delay, long enough so that answers aren't in mind when they need them.

누군가가 무언가를 학습한 직후에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필요할 때 답을 떠올리지 못할 만큼 충분히 긴 약간의 시간 지연을 주는 것보다 보유력 향상에 덜 효과적이다.

[7] Difficulty, far from being a barrier to making retrieval work, may be part of the reason it does so.

난도는 블러오기가 효과를 발하게 하는 데 장애물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효과를 발하게 하는] 이유의 일부일 수도 있다.

No. 30

[1] Internalization depends on supports for autonomy.

내면화는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의존한다.

[2] Contexts that use controlling strategies such as salient rewards and punishments or evaluative, self-esteem-hooking pressures are least likely to lead people to value activities as their own.

두드러진 보상과 처벌 또는 평가하는, 자존감을 건드리는 압박과 같은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활동을 자신의 것으로 가치 있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3] This is not to say that controls don't work to produce behavior — decades of operant psychology prove that they can.

이것은 통제가 행동을 유발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은 아닌데 수십 년에 걸친 조작적 심리학은 통제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4] It is rather that the more salient the external control over a person's behavior, the more the person is likely to be merely externally regulated or introjected in his or her actions.

그 말은 오히려 사람의 행동에 대한 외부 통제가 더 두드러질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서 외부적으로만 규제되거나 투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5] Consequently, the person does not develop a value or investment in the behaviors, but instead remains dependent on external controls.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행동에 대한 가치나 투자를 발전시키지 않고, 대신에 외부 통제에 의존하는 상태로 남는다.

[6] Thus, parents who reward, force, or cajole their child to do homework are more likely to have a child who does so only when rewarded, cajoled, or forced.

따라서 자녀에게 숙제를 하도록 보상을 주거나,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부모는 보상받거나, 회유당하거나, 강요받을 때만 그렇게 하는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7] The salience of external controls undermines the acquisition of self-responsibility.

외적 통제가 두드러지면 자기 책임감의 습득이 약화된다.

[8] Alternatively, parents who supply reasons, show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difficulties overcoming problems, and use a minimum of external incentives are more likely to cultivate a sense of willingness and value for work in their child.

그 대신에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어려움에 대해 정서적 이해를 보여주고, 최소한의 외적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과업에 대한 자발적 의지와 가치에 대한 식별력을 길러줄 가능성이 더 높다.

No. 31

[1] When trying to establish what is meant by digital preservation, the first question that must be addressed is: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디지털 보존이 의미하는 바를 정립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질문은 '실제로 무엇을 보존하려고 하는가?'이다.

[2] This is clear in the analog environment where the information content is inextricably fixed to the physical medium.

이는 정보 콘텐츠가 물리적 매체에 풀 수 없게 고정된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분명하다.

[3]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medium is not part of the message.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가 메시지의 일부가 아니다.

[4] A bit stream looks the same to a computer regardless of the media it is read from.

비트 스트림은 그것이 읽히는 매체와 관계없이 컴퓨터에서 동일하게 보인다.

[5] A physical carrier is necessary, but as long as the source media can be read, bit-perfect copies can be made cheaply and easily on other devices, mak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of diminishing importance.

물리적 이동 장치가 필요하지만, 원본 매체를 읽을 수 있는 한, 다른 기기에서도 비트 단위의 완벽한 복사본을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원본 이동 장치의 보존은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6] As the physical media that carry digital information are quite delicate relative to most analog media, it is expected that digital information will necessarily need to be migrated from one physical carrier to another as part of the ongoing preservation process.

디지털 정보를 전달하는 물리적 매체는 대부분의 아날로그 매체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존 과정의 일환으로 디지털 정보를 한 물리적 이동 장치에서 다른 이동 장치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It is not the media itself but the information on the media that needs to be preserved.

보존해야 하는 것은 매체 자체가 아니라 매체에 담긴 정보이다.

No. 32

[1] Creativity is commonly defined as the production of ideas that are both novel (original, new) and useful (appropriate, feasible).

창의성은 참신하고(독창적이고, 새로운) 유용한(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으로 흔히 정의된다.

[2] Ideas that are original but not useful are irrelevant, and ideas that are useful but not original are unremarkable.

독창적이지만 유용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무의미하고, 유용하지만 독창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는 특별한 것이 없다.

[3] While this definition is widely used in research, an important aspect of creativity is often ignored: Generating creative ideas rarely is the final goal.

이러한 정의가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창의성의 중요한 측면이 흔히 간과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4] Rather, to successfully solve problems or innovate requires one or a few good ideas that really work, and work better than previous approaches.

오히려,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거나 혁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작동하고 이전 접근 방식보다 더 잘 작동하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5] This requires that people evaluate the products of their own or each other's imagination, and choose those ideas that seem promising enough to develop further, and abandon those that are unlikely to be successful.

이를 위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 또는 서로의 상상력 산물을 평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유망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선택하며, 성공 가능성이 작은 것들은 포기해야 한다.

[6] Thus, being creative does not stop with idea generation.

따라서 창의적인 것은 아이디어 생성에서 멈추지 않는다.

[7] In fact, the ability to generate creative ideas is essentially useless if these ideas subsequently die a silent death.

사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이후 조용히 죽어 없어진다면 본질적으로 쓸모가 없다.

No. 33

[1] Because the environ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aiding meaningful internal processes, subjective experience and the environment act as a 'coupled system.'

환경이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 경험과 환경은 '결합된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2] This coupled system can be seen as a complete cognitive system of its own.

이 결합된 시스템은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인지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3] In this manner, subjective experience is extended into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vice versa; the external environment with its disciplinary objects such as institutional laws and equipment becomes mental institutions that affect our subjective experience and solutions.

이런 방식으로 주관적 경험은 외부 환경으로 확장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제도적 법률과 장비와 같은 규율 객체를 지닌 외부 환경은 우리의 주관적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제도가 된다.

[4] A subjectively held belief attains the status of objectivity when the belief is socially shared.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때 그 믿음은 객관성의 지위를 얻는다.

[5] That is, even if we are trained as hard-nosed health care rationalists, or no-nonsense bureaucrats, or data-driven scientists, research has shown that our decisions are influenced by various institutional practices.

즉, 우리가 엄격한 의료 합리주의자, 혹은 현실적인 관료, 혹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자로 훈련되어 있다고 해도,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결정은 다양한 제도적 관행의 영향을 받는다.

[6] They include bureaucratic structures and procedures, the architectural design of health care institutions, the rules of evidence and the structure of allowable questions in a courtroom trial, the spatial arrangement of kindergartens and supermarkets, and a variety of conventions and practices designed to manipulate our emotions.

그것에는 관료적 구조와 절차, 의료 기관의 건축 설계, 법정 재판에서 증거 규칙과 허용되는 질문의 구조, 유치원과 슈퍼마켓의 공간 배치,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관습과 관행이 포함된다.

No. 34

[1] Any attempt to model musical behavior or perception in a general way is filled with difficulties.
일반적인 방식으로 음악적 행동이나 인식의 모형을 만들려는 시도는 어떤 것이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2] With regard to models of perception, the question arises of whose perception we are trying to model — even if we confine ourselves to a particular culture and historical environment.

인식의 모형과 관련하여, 우리가 특정 문화와 역사적 환경에 국한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의 인식을 모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생긴다.

[3] Surely the perception of music varies greatly between listeners of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indeed, a large part of music education is devoted to developing and enriching (and therefore likely changing) these listening processes.

분명, 음악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수준의 훈련을 받은 청취자마다 크게 다르며, 사실, 음악 교육의 큰 부분은 이러한 청취 과정을 개발하고 풍부하게 하는(따라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데 할애되고 있다.

[4] While this may be true, I am concerned here with fairly basic aspects of perception — particularly meter and key — which I believe are relatively consistent across listeners.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나는 여기서는 인식의 아주 기본적인 측면, 특히 박자 및 조성과 같이 청취자 간에 비교적 일관성이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

[5] Anecdotal evidence suggests, for example, that most people are able to "find the beat" in a typical folk song or classical piece.

예를 들어, 대부분 사람은 전형적인 민요나 클래식 곡에서 '박자를 찾을' 수 있다는 일화적 증거가 있다.

[6]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is complete uniformity in this regard — there may be occasional disagreements, even among experts, as to how we hear the tonality or meter of a piece.

이것이 이 점에 있어 완전한 일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곡의 음조나 박자를 듣는 방법에 대해 이따금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7] But I believe the commonalities between us far outweigh the differences.

하지만 나는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훨씬 더 크다고 믿는다.

No. 35

[1] Avian song learning occurs in two stages: first, songs must be memorized and, second, they must be practiced.

조류의 노래 학습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로는, 노래를 암기해야 하고 둘째로는, 노래를 연습해야 한다.

[2] In some species these two events overlap, but in others memorization can occur before practice by several months, providing an impressive example of long-term memory storage.

일부 종에서는 이 두 가지 일이 겹치기도 하지만, 다른 종에서는 연습 전 몇 달 동안 암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장기 기억 저장의 인상적인 예를 제공한다.

[3] The young bird's initial efforts to reproduce the memorized song are usually not successful.

어린 새가 암기한 노래를 재현하려는 초기의 노력은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하다.

[4] These early songs may have uneven pitch, irregular tempo, and notes that are out of order or poorly reproduced.

이러한 초기의 노래에는 고르지 않은 음정과 불규칙한 박자, 그리고 순서가 맞지 않거나 제대로 재현되지 않은 음이 있을 수도 있다.

[5] However, sound graphs of songs recorded over several weeks or months reveal that during this practice period the bird fine-tunes his efforts until he produces an accurate copy of the memorized template.

하지만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녹음된 노래의 음향 그래프를 보면, 이 연습 기간 동안 새가 암기된 본보기를 정확하게 모방할 때까지 미세 조정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This process requires hearing oneself sing; birds are unable to reproduce memorized songs if they are deafened after memorization but before the practice period.

이 과정에서는 자신이 노래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데, 만약 새들이 암기한 후이지만 연습 기간 전에 귀가 먹으면 암기된 노래를 재현할 수 없다.

No. 36

[1] Wildfire is a natural phenomenon in many Australian environments.

산불은 호주의 많은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 The intentional setting of fire to manage the landscape was practised by Aboriginal people for millennia.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는 일은 수천 년 동안 호주 원주민들에 의해 행해졌다.

[3] However, the pattern of burning that stockmen introduced was unlike previous regimes.

하지만 목축업자들이 도입한 불 지르기 방식은 이전 양식과는 달랐다.

[4] When conditions allowed, they would set fire to the landscape as they moved their animals out for the winter.

여건이 허락되면, 그들은 겨울에 자신들의 가축을 외부로 이동시켜, 경관에 불을 지르곤 했다.

[5] This functioned to clear woody vegetation and also stimulated new plant growth in the following spring.

이는 숲이 우거진 초목을 없애는 역할을 했고, 또한 이듬해 봄에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촉진했다.

[6] The young shoots were a ready food source for their animals when they returned.

어린 새싹은 그들의 동물들이 돌아왔을 때 준비된 먹을 수 있는 식량원이었다.

[7] However, the practice also tended to reinforce the scrubby growth it was intended to control.

하지만, 그 관행은 또한 통제하고자 했던 우거진 관목의 성장을 강화하는 경향도 있었다.

[8] Although grasses were the first kinds of plants to recolonize the burnt areas they were soon succeeded by further woody plants and shrubs.

불에 탄 지역에 다시 대량 서식한 첫 번째 식물류는 풀이었지만, 목본성 식물과 관목이 곧 그것들의 뒤를 이었다.

[9] About the only strategy to prevent such regrowth was further burning — essentially using fire to control the consequences of using fire.

그러한 재생장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전략은 불을 더 지르는 것이었는데, 본질적으로는 불을 사용하여 불을 사용한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No. 37

[1] There are a number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that are necessary to support organizational learning.

조직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이 있다.

[2] For example,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ward systems that reinforce long-term performance and the development and sharing of new skills and knowledge are particularly important.

예컨대, 장기적인 성과를 강화하는 업무 평가 및 보상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개발 및 공유가 특히 중요하다.

[3] In addition,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ction may be dramatically changed to keep the emphasis on continuous learning.

또한, 지속적인 학습에 계속 중점을 두도록 인적 자원 개발 기능을 획기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4] In a learning organization, every employee must take the responsibility for acquiring and transferring knowledge.

학습 조직 내 모든 직원은 지식 습득과 전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Formal training programs, developed in advance and delivered according to a preset schedule, are insufficient to address shifting training needs and encourage timely information sharing.

사전에 개발되어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제공되는 형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고 시기적절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6] Rather,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fessionals must become learning facilitators.

오히려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가 학습의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7] Their role should be to assist, consult, and advise teams on how best to approach learning.

그들의 역할은 학습에 가장 잘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팀을 지원하고, 상담하고, 조언하는 것이어야 한다.

[8] They must be able to develop new mechanisms for cross-training peers — team members — and new systems for capturing and sharing information.

그들은 동료, 즉 팀원을 두 가지 이상의 일이 가능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법과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9] To do thi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fessionals must be able to think systematically and understand how to promote learning within groups and across the organization.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는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집단 내 및 조직 전체에서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No. 38

[1] Environmental taxes based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can, in principle, be very precisely targeted to the policy's environmental objectives.

측정된 배출물에 직접적으로 기반한 환경세는 원칙적으로 그 정책의 환경적 목표를 매우 정확하게 겨냥할 수 있다.

[2] If a firm pollutes more, it pays additional tax directly in proportion to the rise in emissions.

어떤 기업이 더 많이 오염시키면 그 기업은 배출물 증가에 직접적으로 비례한 추가 세금을 낸다.

[3] The polluter thus has an incentive to reduce emissions in any manner that is less costly per unit of abatement than the tax on each unit of residual emissions.

따라서 공해 기업은 잔여 배출물의 단 위당 세금보다 감소 단위당 비용이 덜 드는 어떤 방식으로든 배출량을 줄이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4] The great attraction of basing the tax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is that the actions the polluter can take to reduce tax liability are actions that also reduce emissions.

세금을 측정된 배출물에 직접 기반하는 것의 매우 큰 매력은 공해 기업이 세금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배출물을 줄이는 조치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5] Continuous emissions measurement can be costly, particularly where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of emissions, and for many pollution problems this may be a major disincentive to direct taxation of emissions.

지속적인 배출물 측정은 특히 개별 배출원이 많은 경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많은 오염 문제에 있어 이는 배출물에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에 주요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6] Nevertheless, the technologies available for monitoring the concentrations and flows of particular substances in waste discharges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방출에서 특정 물질의 농도와 흐름을 관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다.

[7] In the future, it may be possible to think of taxing measured emissions in a wider range of applications.

앞으로는 더 광범위한 적용으로 측정된 배출물에 대한 세금 부과를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No. 39

[1]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bject matter (i.e., figure) and style (i.e., background).

주제(즉, 형상)와 스타일(즉, 배경)의 상대적 중요성에는 흥미로운 균형이 있다.

[2]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plays, or stories, the focus is on subject matter that resembles everyday life and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is to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s.

고도로 구상주의적인 그림, 연극 또는 이야기에서는 초점이 일상생활과 유사한 주제에 있고, 배경 스타일의 역할은 심성 모형의 구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3]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carry the viewer along to the conclusion of the piece.

즐거움과 불확실성의 감정은 관객을 작품의 결말까지 함께 이끌고 간다.

[4]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novel stylistic devices work in an inharmonious manner against the subject matter thereby creating a disquieting atmosphere.

고도로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는 새로운 스타일 장치가 주제와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용하여, 그림으로써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5] Thus,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or easily interpreted), it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reminds the viewer or reader that an "aesthetic attitude" is needed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따라서 작품이 덜 '읽기 쉬운'(혹은 쉽게 해석되는) 상태일 때, 그것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보는 사람이나 독자에게 작품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미학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6] This active involvement provides a basis for depth of aesthetic processing and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는 미학적 처리와 작품 의미 성찰의 깊이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

[7]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and an "aesthetic attitude" is fundamental to a balanced life.

일상생활의 '실용주의적 태도'와 '미학적 태도' 사이를 전환하는 능력은 균형 잡힌 삶에 있어 핵심적이다.

No. 40

[1] There is a tendency, once the dust of an emergency has settled down, to seek the reduction of famine vulnerability primarily in enhanced economic growth, or the revival of the rural economy, or the diver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일단 비상사태의 소요가 진정되고 나면, 주로 강화된 경제 성장이나 지방 경제의 회복, 혹은 경제 활동의 다각화에서 기근 취약성 감소를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

[2]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greater economic success, if it involves vulnerable groups, cannot be denied.

더 큰 경제적 성공의 잠재적 기여는, 만약 그것이 취약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면, 부인할 수 없다.

[3]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no matter how fast they grow, countries where a large part of the population derive their livelihood from uncertain sources cannot hope to prevent famines without specialized entitlement protection mechanisms involving direct public intervention.

그와 동시에, 아무리 빠르게 성장하더라도, 인구의 상당수가 그들의 생계를 불확실한 원천으로부터 마련하는 국가는 직접적인 공적 개입을 포함하는 특화된 재정 지원 혜택의 보호 방법 없이는 기근 예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4] Rapid growth of the economy in Botswana, or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Kenya, or of food production in Zimbabwe, explains at best only a small part of their success in preventing recurrent threats of famine.

보츠와나의 경제, 케냐의 농업 부문, 혹은 짐바브웨의 식량 생산의 급속한 성장은 기껏해야 기근의 반복되는 위협을 방지하는 데 있어 그들이 성공한 작은 일부분만을 설명할 뿐이다.

[5] The real achievements of these countries lie in having provided direct public support to their populations in times of crisis.

이들 국가의 진정한 성과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공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데 있다.

[6] → Although economic growth can be somewhat fruitful in diminishing a country's risk of famine, direct approaches to helping the affected people play a critical role in this process.

→ 비록 경제 성장이 한 국가의 기근 위험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No. 41-42

[1] If we understand critical thinking as: 'the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to guide decision-making', then ethical thinking is about identifying ethical issues and evaluating these issue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o guide how to respond.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의사결정을 안내하기 위한 증거의 검증 및 평가'로 이해한다면, 윤리적 사고는 윤리적 사안을 식별하고 이러한 사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를 안내하는 것이다.

[2] This form of ethics is distinct from higher levels of conceptual ethics or theory.

이러한 형태의 윤리는 더 높은 수준의 개념적 윤리나 이론과는 구별된다.

[3] The nature of an ethical issue or problem from this perspective is that there is no clear right or wrong response.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적 사안이나 문제의 본질은 명백하게 옳거나 그른 대응이 없다는 것이다.

[4] It is therefore essential that students learn to think through ethical issues rather than follow a prescribed set of ethical codes or rules.

따라서 학생들은 규정된 일련의 윤리 규범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는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5]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recognition that, although being ethical is defined as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conduct that are considered correct', these principles vary both between and within individuals.

비록 윤리적인 행동이 '옳다고 여겨지는 행동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개인 간 그리고 개인 내에서도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6] What a person values relates to their social, religious, or civic beliefs influenced by their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experiences.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공식적이고 또 비공식적인 학습 경험에 의해 영향받은 사회적, 종교적, 혹은 시민으로서의 신념과 관련이 있다.

[7] Individual perspectives may also be context dependent, meaning that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at a different time, when they are feeling a different way, the same individual may make different choices.

개인의 관점은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시간에, 그들이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동일한 개인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8] Therefore, in order to analyse ethical issues and think ethicall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rsonal factors that influence your own 'code of behaviour' and how these may vary, alongside recognizing and accepting that the factors that drive other people's codes and decision making may be different.

따라서 윤리적 사안을 분석하고 윤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과, 이것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며,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 규범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